

## 청년층 일자리정책과 지역

이 규 용\*

청년층 고용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민감도가 높고, 미취업이나 저고용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실업대책 이상의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 고용문제의 개선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전체 일자리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비롯하여 2017년 이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면 청년고용촉진방안, 선취업·후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대책,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세제지원, 청년·구조조정지역 일자리 지원대책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지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잘 알려져 있듯이 청년층 고용문제의 원인이 노동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구조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 대책에 추가적으로 예산투입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보다 천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청년층 고용문제를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작은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이라는 장소성이 갖는 함의는 맞춤형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대책을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책수요자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leeky@kli.re.kr).

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발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지역단위의 일자리 접근은 일자리 대책이라는 노동시장 정책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책추진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책임과 권한의 소재로 읽혀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보다는 다음의 내용이 보다 설득력 있다. 즉, 일자리정책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느냐 지역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지역차원의 일자리 접근의 성패는 직면한 경제적 도전에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에게 유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짚어보고 풀어가야 한다는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OECD나 EU 등의 권고나 해외국가들의 여러 정책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청년층 대책에서 지역차원의 국지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관련 연구들도 개별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방향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동리뷰에서 청년층의 지리적 이동과 이에 따른 임금효과를 다루고 있는 세 편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청년층의 지리적 이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지리적 이동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는 지역고용정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자리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 밖으로 인재를 유출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현실과 당위성 간의 괴리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 봐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고용 대책, 나아가 청년정책 방향을 지역고용전략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KLI**